

“그들이 곁에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신재원 목사의 제자훈련 七顛八起 (칠전팔기)



신재원 목사

훈련받은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게 됐고,
이를 본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됐다.
또한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사역에 하나가 되어
헌신하게 되었다.

도공의 손에 의해 도자기가 빚어지듯 목회자에 의해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한 덩어리의 흙이 어떤 모습으로 성형되느냐는 철저하게 도공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만큼 제자 훈련에 있어 목회자의 역할은 자못 중요하다. 새춘천교회 신재원 목사는 “요즘은 정말 목회할 맛이 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든든한 목회의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훈련생들과 함께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마치 수십 명의 부교역자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이런 흥분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III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을 캐다

신재원 목사가 처음 새춘천교회에 부임할 당시 교회의 상황은 ‘열악함’ 그 자체였다. 30여 명의 성도가 6개월가량 목자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전형적인 미자립 교회였다. 게다가 도심외곽의 개발제한지역이라 주택 노후,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성도들의 이주가 이어졌다. 제자훈련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고 부임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여건만을 탓하고 있을 수 없었다. 해서 3개월 단기과정으로 신앙교육을 시작했다. 제자훈련을 위한 토양을 다지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단기과정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 7기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토양이 다져졌다고 판단한 신 목사는 제자훈련 1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왔다. 21명으로 시작한 1기 훈련은 3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수료한 사람은 5명뿐이었다.

“교회의 상황이나 훈련생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자훈련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너무 앞섰던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같습니다. 제자훈련 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서 많은 훈련생들이 힘들어했고 중도탈락자가 생기면서 일종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원칙을 지키면서도 훈련생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이 진행되면서 토박이 성도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목사가 젊은 것들만 좋아한다”는 등의 비판은 3기 수료 시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제자훈련 수료생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이러한 비판들은 이내 잦아들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훈련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훈련을 마치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당연히 제자훈련에 대한 성도들의 비판은 명분을 잃게 되었고, 제자훈련 신청자도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자훈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남제자반을 시작했지만, 중도 탈락자들이 속출하면서 5년 만에야 첫 수료생을 배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남제자반 1기(전체 5기) 수료생이자 새춘천교회의 유일한 장로인 이청섭 장로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목사님께서 여러 현장을 데리고 다

니시며 탐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막상 제자훈련이 시작되자 동기생들 중에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결국 3수 끝에 5년 만에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직장(사업)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훈련에 임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정착되어가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지여론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게 됐고, 이를 본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됐다. 또한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사역에 하나가 되어 헌신하게 되었다.

“아무리 초신자라고 해도 훈련과정을 거치고 나면 개인과 가정이 변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성도들에게 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지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제자훈련 받는 아내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면서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물론이고 함께 제자훈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 교회적 지원을 받으며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훈련받은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전 교회가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주어 이제는 그들을 믿고 사역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다

순탄치 않은 제자훈련의 여정이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 목사는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정착시키면서 표출됐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기성 성도이지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소외감이나 그로 인한 반발. 둘째, 훈련받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의 비판. 셋째, 훈련은 마쳤으나 사역에 헌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수료생들 등이다. 신 목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 노력해 나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자로 돌아서거나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사역의 장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면서 사역을 이해시켜 나갔습니다. 쉽게 이해시킬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은 여전상 훈련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지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중도 탈락을 합리화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으로 신앙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훈련을 더욱 강화시켜나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훈련받은 성도들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괴감에 빠진 성도들은 개인 심방과 격려를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다른 영역에서 은사를 발휘하도록 해,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끝으로 훈련을 마친 성도들이 사역에 헌신하지 않거나 본이 되지 못할 때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를 부여했고, 후배 훈련생들을 섬기거나 멘토 사역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전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들을 포기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역인 만큼 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신 목사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자훈련을 위한 토양 다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때문에 훈련과 양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목사는 이를 위해 전체 과정을 교회정착 과정, 제자훈련 과정, 사역훈련 과정, 교회사역 과정 등 4개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교회정착 과정에는 새가족반(4, 8, 12주), 세례반(4주), 큐티반(4주)을, 제자훈련 과정에는 교리반(12주), 생활반(12주)을, 사역훈련 과정에는 사역기초반(12주), 소그룹인도반(12주)을, 교회사역 과정에는 전도사역반(12주), 성경반(12주), 멘토사역반(4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가족반의 경우 신앙 정도에 따라 4주, 8주, 12주 과정으로 세분화했으며, 교회사역 과정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운영하도록 해 훈련을 마친 사역자들에게 다양한 사역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큐티반의 경우 제자훈련 과정에서 큐티 과정을 별도로 떼어내 보강한 것으로, 성도들이 낯설게만 느끼는 큐티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훈련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큐티였기 때문에 새춘천교회는 제자훈련을 신청하면 먼저 4주 과정의 큐티반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큐티반 수료생들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해 제자반을 편성한다.

III 춘천에서 강원, 강원에서 세계로

신재원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주님과과의 교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삶을 강조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훈련을 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님과과의 교제(신앙 인격 훈련)를 강조한 것이다. 훈련생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 구원과 섬김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했다. 제자훈련이 정착되어 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훈련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고,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신 목사의 평가다.

“1991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훈련받은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전 교회가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주어 이제는 그들을 믿고 사역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신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전도사역, 새가족사역, 멘토사역, 양육사역, 예배사역, 기도사역 등 6가지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다. 기획 단계부터 팀 구성은 물론 모든 운영에 이르기까지 팀장을 비롯한 5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이끌어 간다. 다만 은사 배치만큼은 팀장의 건의를 받아 신 목사가 직접 챙긴다. 새춘천교회는 6가지 사역이 균형을 이루어 교회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전도사역팀의 경우 강원지역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면서 제자훈련을 전파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춘천교회가 얻은 전도의 결실은 실로 놀랄 만한 것이었다. 6개월 동안 교회 주변에서 장년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벌인 결과 60명이 새로이 등록했고, 겨울방학 동안에는 어린이 전도에 전력해 100여 명이 등록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자립 교회 지원을



위해 9곳을 선정, 지속적(3, 6, 9월)으로 전도팀을 파송한 결과 6,150가정에게 복음을 제시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신한 것은 물론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의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전도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서연숙 집사의 말이다.

“전도팀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전도를 했다면 이와 같은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장년 전도와 함께 청소년·어린이 전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실시했던 어린이 전도의 결과를 통해 청년·어린이 전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춘천교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은 세계선교로 이어져 작년 11월에는 카메룬에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 교회를 한 곳 개척했고 곧 새로운 교회를 하나 더 세울 계획이다. 새춘천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해 7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III 꾀대를 향하여

새춘천교회 신재원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통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실현될 그날을 위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있다. 새춘천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새춘천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훈련을 위해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더욱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에 훈련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저 역시 훈련생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모범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온전케 하는 제자훈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교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입니다. 제자훈련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자훈련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역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갈 것입니다. 먼저 훈련을 마친 성도들이 모범을 보일 때 그들을 통해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기 때문이지요. 넷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전파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선교를 위해 교회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선교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카메룬은 물론 필리핀과 러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회자의 제자훈련을 향한 열정이 쓰러져 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살렸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 그들은 지역 복음화는 물론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고 주님의 작은 제자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가고 있다. 그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주명석 기자〉

평신도 지도자 방담

“섬김 없는 신앙은 꾀데기에 불과”



좌로부터 조원순 권사, 김진무 집사, 손순자 집사, 이청섭 장로, 배미정 집사, 서연숙 집사

그때 그 시절

조원순 권사(7기)

제자훈련 1기를 시작할 때 21명이 신청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훈련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나빠졌고 이 같은 분위기는 3기 수료시점까지 이어졌지요. 하지만 훈련생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김진무 집사(6기)

아내의 변화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존적이던 아내가 능동적으로 변화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사명 의식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손순자 집사(7기)

친정아버님이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친정을 방문할 때마다 사탄의 영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동생은 기도도 저는 말씀으로 사탄의 영에 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집에 있던 우상을 불살라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읽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청섭 장로(5기)

동기생들의 중도 탈락으로 3수 끝에 5기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미정 집사(7기)

초신자로 교회에 등록해 모든 훈련을 거쳤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동기들과 함께 성장해갈 수 있었던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훈련을 통해 신앙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신자일수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숙 집사(5기)

춘천으로 이사와서 처음 새춘천교회에 출석한 날이 4기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때 수료생들의 소감 발표를 들으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바로 등록하고 단기간 과정을 마치고 제자훈련을 지원했습니다. 확신이 부족했던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 부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역반까지 마치면서도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김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이청섭 장로 제자훈련을 통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이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진무 집사 날마다 거듭나는 삶(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원순 권사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사람을 키우고 섬기는 사역을 펼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정 집사 제자훈련을 통해 새가족을 섬기는 사역과 전도 사역에 대한 은사를 발견한 만큼 두 가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손순자 집사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나가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서연숙 집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 바랍니다.